사람들의 땅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VII. 사막 한가운데에서

I

지중해로 접어들어서면서 나는 낮은 구름들을 만났다. 고도 20미터까지 하강해 보았다. 소낙비가 앞창을 두드리고 해수면 위로는 연기가 솟는 듯하였다. 무엇인가 지형지물을 발견하려고, 또 기선 마스트와 충돌을 피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내 기관사 앙드레 프레보가 담뱃불을 붙여 준다.

"커피 있나…."

그는 비행기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보온병을 들고 온다. 커피를 마신다. 순조롭게 RPM을 200으로 유지하려고 이따금 가스 핸들을 손가락으로 튕겨 본다. 계기판을 죽 한 번 훑어본다. 내 부하들은 나를 잘 따르는지라 계기바늘마다 제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 빗줄기 속에서도 거대한 냄비처럼 김을 내뿜는 바다 위로 시선을 던진다. 내가 만일 수상비행기로 비행하고 있다면 그토록 "골이 깊은" 바다를 탓하리라. 그런데 나는 비행기에 있다. 골이 깊건 말건 바다에 내릴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어도 그 사실이 일종의 부조리한 안정감을 부여한다. 바다는 내 소유가 아닌 세계의 일부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내가 알 바 아니며, 내게 위협도 되지 않는다. 바다에 맞추어 비행 장비를 장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시간 반을 날자 비가 잦아들었다. 구름들은 여전히 매우 낮게 깔려 있었으나, 구름 사이로 커다란 미소를 짓듯 태양 광선이 내리쬐고 있다. 서서히 조짐이 드러나는 청명한 기후에 나는 탄복하고 있다. 머리 위로 하얀 구름이 솜처럼 얇게 깔려 있음을 예감한다. 소나기를 피하려고 사선으로 비행해 본다. 그 심장부를 가로 지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구름의 갈라진 틈이 드러나고 있다…

보이지는 않아도 미리 예감하고 있었다. 정면 바다 위로 기다란 초원의 빛을 띤, 초록빛으로 빛나는 사막 한복판의 오아시스가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사막을 3천 킬로미터나 날아 세네갈로부터 되올라 오던 때 모로코 남쪽 지역에서 내 심장을 파고들던 그 보리밭의 색과 닮은 오아시스 말이다. 여기서도 나는 이제 살 만한 지역에 진입했음을 느끼며, 가벼운 쾌감을 맛본다. 프레보 쪽으로 몸을 돌린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튀니스.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서류에 사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풀썩!" 하고 다이빙할 때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메아리 없는 저 둔탁한 소리들의 하나가. 바로 그 순간 나는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격납고에서 일어난 폭발 소리 말이다. 이 목쉰 기침 소리 속에 사람이 둘이나 죽었었다. 활주로를 따라 난 길 쪽으로 몸을 돌린다. 약간의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다. 빠른 속도를 내고 달리던 자동차 두 대가 충돌하더니, 빙하에 박힌 듯 꼼짝도 않고 멈춰서 있다. 더러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더러는 우리에게 달려온다.

"전화해… 의사 부르라고… 머리가 으깨졌어…."

가슴이 에이는 듯하였다. 고요한 황혼 어스름 속에 막 운명이 성공적으로 습격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아름다움 하나가, 지식 하나가 혹은 생명 하나가 짓밟힌 것이니… 해적들이 이렇게 사막을 행군해 왔어도 그 모래 위를 유연하게 밟는 발자국 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야영에서의 약탈로 일어나는 짤막한 소요였다. 이어서 모든 것이 황금빛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다. 똑같은 평화, 똑같은 침묵… 곁에서 누군가 절단난 두개골 이야기를 한다. 그 유혈이 낭자한 얼굴에 관해서는 아예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등을 돌려 비행기로 돌아온다. 그래도 위협적인 인상이 가슴에서 가시지가 않는다. 그때 그 소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시속 270킬로미터로 나의 검은 고원을 스치며 비행할 때면 똑같은 목쉰 기침 소리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약속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운명이 내는 '앗' 하는 똑같은 소리 말이다.

벵가지로 출발한다.

II

비행 중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도 두 시간 남았다. 트리폴리타니아[1]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검은 안경을 벗어 던졌다. 모래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이 지구는 어찌 이리도 적막한 것인지! 또다시 강이며, 녹음이며, 사람들의 거주지란 것들이 여기에서는 다행스러운 우연의 일치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내게 비쳐진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바위와 모래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내게는 이 모두가 기이하다. 나는 비행 영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원에서처럼 자신을 가두는 시간으로서의 밤이 다가옴을 느낀다. 구원을 줄 수도 없는 명상 속에서 본질적인 의식의 은밀함 속에 자신을 가두는 밤 말이다. 불경스러운 세상은 이미 모두 지워져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풍경 구석구석마다 아직은 황금빛을 머금고 있으나 이미 벌써 무엇인가 거기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 분명 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이 시간만큼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다. 그리고 비행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경험한 자들은 나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점차 태양을 포기해 가는 것이다. 여차하면 사고 시에 나를 맞아 줄 드넓은 황금빛 표면을 포기한다… 나는 포기한다, 나를 이끌어 줄 표지판들도, 나를 장애물로부터 피하게 해 줄 공중에 버틴 산악의 단면들도, 나는 밤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항해하고 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곤 오로지 별뿐이다…

---

[1] la Tripolitaine. 리비아 북동 지중해 연안 지역. 고대 그리스의 세 도시 오에아Oea, 렙티스 마그나Leptis Magna, 사브라타Sabratha가 이곳에 있으며 수도 트리폴리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함.

세상의 이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점차 빛이 내게서 빠져나간다. 점차 땅과 하늘이 섞여 든다. 마치 이 땅이 솟아올라 수증기처럼 퍼져 나가는 것 같다. 처음 떠오른 별들이 마치 초록빛 바닷물 속에서 그랬듯이 떨고 있다. 이들이 견고한 금강석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유성들이 벌이는 침묵의 유희를 보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리라. 어떤 깊은 밤에는 한밤중 달리는 불꽃을 어지간히 본 탓에 마치 별들 사이로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프레보가 일상등과 비상등을 시험해 본다. 우리는 전구에 붉은 종이로 갓을 씌웠다.

"한 겹 더 쌀까…."

프레보가 다시 한 겹을 더 입히고는 스위치를 켜 본다. 조명이 여전히 너무 밝다. 조명은 사진관에서 그러하듯 외부 세계의 어렴풋한 모습들을 가려 버리는 것 같다. 조명 때문에 밤이면 이따금 여전히 계기들에 붙어 있는 저 얼마 안 되는 인광마저 다 말라 버릴 것이다. 그 밤이 왔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생명은 아니다. 초승달이 남아 있다. 프레보가 뒤쪽으로 기어 들어가 샌드위치를 갖고 나온다. 포도송이 하나를 깨죽거려 본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니다. 허기도 아니요, 갈증도 아니다. 피로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이대로 한 10년은 더 조종할 수 있을 것 같다.

달이 죽어 버렸다.

캄캄한 밤 속에 벵가지[2]에 이른 듯하다. 시가지 경계를 알리는 그 어떤 빛의 흔적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벵가지는 진정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 도착하면서야 비로소 시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착륙장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그 붉은 표지등에 불이 들어온다. 불이 들어오니 검은 직사각형의 틀이 뚜렷이 드러난다. 나는 선회한다. 하늘을 비추는 관제등의 불빛이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처럼 똑바로 치솟아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착륙장에 황금 도로를 그려 놓는다. 장애물들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나는 다시 선회한다. 이 비행장의 야간 시설은 탄복할 만하다. 속력을 낮추고 시커먼 물속으로 잠수하듯 나는 하강하기 시작한다.

착륙 시간은 현지 시간 23시. 관제등 쪽으로 비행기를 몰아간다. 세계에서도 가장 절도 있는 장교와 사병들이 어둠으로부터 탐조등의 강렬한 빛 속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이다 말다 한다. 내 서류를 접수하더니 휘발유를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20분이면 통과 수속이 끝날 것이다.

"한 번 회전한 후, 이 위로 통과하시오. 안 그러면 이륙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출발이다.

나는 이 황금빛 활주로 위, 장애물도 없는 통로 쪽으로 질주한다. "시문"[3] 기종의 내 비행기는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초과해서 실은 적재물을 이륙시킨다. 탐조등 빛이 뒤에서 나를 비추는 바람에 선회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결국 탐조등이 나를 풀어 준다. 눈부시게 했음을 눈치챈 모양이다. 수직으로 반 회전하는 순간 탐조등이 또다시 내 얼굴을 비춘다. 하지만 불빛은 내게 닿자마자 나를 비껴나 그 긴 황금 플루트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러한 신중함에서 나는 극도의 예절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사막을 향해 기수를

---

[2] Bengnazi. 리비아 제2의 도시. 트리폴리타니아와 접하고 있는 키레나이카Cyrenaica 지역의 수도.

[3] Caudron Simoun. 생텍쥐페리가 1935년 7월 개인적으로 구입한 비행기. 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상 오보로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기체가 폭파된다.

돌린다.

파리, 튀니스와 벵가지로부터의 기상 예보들이 시속 30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의 바람이 내 뒤를 좇고 있음을 통보해 주었다. 나는 시속 300킬로미터의 순항을 기대해 본다.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잇는 직선 구간의 한복판으로 기수를 돌린다. 그렇게 나는 해안의 금지 구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를 덮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편류를 무릅쓰고라도 오른쪽으로건 혹은 왼쪽으로건 이 도시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의 불빛을 받거나, 혹 좀더 일상적으로 판단해서 나일 강 계곡의 불빛을 받을 수도 있다. 바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 시간 이십 분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바람이 잦아든다면 세 시간 사십오 분간의 비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1,050킬로미터의 사막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이젠 달도 보이지 않는다. 별들에까지 확산된 어둠의 아스팔트. 나는 불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 어떤 표지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무전기가 없으니 나일 강에 이르기 전에는 사람이 발신하는 어떤 신호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내 나침반이나 스페라[4] 외에는 아무것도 관측할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어두침침한 계기판 위로 표시되는 엷은 라듐 선의 느린 파동 말고는 다른 것에 더 이상 관심을 줄 만한 여력도 없다. 프레보가 자리를 바꾸면 나는 천천히 중심 편차를 수정한다. 적당한 바람을 유지할 만한 고도라고 통보받은 2천으로 상승한다. 그 긴 간격을 두고 일부 야광인 엔진 계기판을 살피기 위해 가끔 램프를 켜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간을 암흑 속에 갇혀 보낸다. 별들과 똑같은 광물성 빛, 쓸모도 없고 은밀한 빛을 발산하는, 똑같은 언어로 말을 걸어 오는 내 작은 성좌들 사이에서 말이다. 나 역시도 천문학자들처럼 천체 역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도 근면하고 순수한 인간으로 느껴진다. 바깥세상은 모든 빛이 사라졌다. 제법 잘 버티다가 잠든 프레보가 있고, 그래서 나는 내 고독을 더 제대로 음미하고 있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엔진의 소음이 들리고, 정면에 보이는 계기판 위로 이 모든 말 없는 별들이 빛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명상 중이다. 우리는 달의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무전도 끊겼다. 나일 강 빛이 드리우는 그물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가는 끈일망정, 우리와 세계를 이어 줄 끈 하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심리만상 밖에 있으며, 우리의 엔진만이 우리를 이 아스팔트 속에 매달려 버티게 한다. 우리는 동화 속 거대한 어둠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있다. 여기서는 누가 구조해 주는 법도 없다. 여기서는 실책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의 재량에 따를 뿐이다.

램프 샤프트 조인트[5]로부터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온다. 프레보를 깨워 빛을 끄도록 한다. 프레보는 어둠 속에서 곰처럼 몸을 뒤적이다 앞으로 나간다.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지만 하여간 열심히 손수건들과 검은 종이를 짜 맞추고 있다. 나의 빛줄기는 사라졌다. 그 빛줄기는 이 세상에서 균열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라듐의 창백하고 아득한 빛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빛이었다. 그것은 어둠의 상자에서 나오는 빛이었지 별빛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것이 내 눈을 어지럽히고, 그 나머지 빛들을 지워 버렸다.

비행 세 시간째. 생생하게 느껴지는 환한 빛이 내 오른쪽으로 뿜어져 오른다. 나는 바라본다. 그때까지 내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머물던 기다란 빛의 궤적이 날개 미등에 엉겨 붙는다. 그것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4 sperry. 스페리자이로스코프 사의 자이로스코프.

5 배전반.

간헐적인 미광이었다.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구름이 내 램프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목표물들에 가까이 온 이상 맑은 하늘을 고대했었다. 날개가 주위의 빛을 받아 환해진다. 빛이 자리를 잡더니, 고정된 상태에서, 번쩍번쩍거린다. 그러자 저 아래쪽으로 장밋빛 꽃다발이 형성되고 있다. 두터운 난기류가 나를 뒤흔든다. 두께를 알 수 없는 뭉게구름 바람 속 어딘가로 비행하고 있다. 2,500까지 올라가도 구름을 벗어날 수 없다. 다시 1천으로 내려간다. 꽃다발은 여전히 남아, 요지부동인 채 더욱 반짝거린다. 괜찮아. 잘 나아가고 있어. 막막하지만 말이야. 다른 생각도 해 본다. 여기서 빠져나가면 알게 되겠지. 그래도 저 추악한 여인숙 등불은 영 마음에 안 드는걸.

나는 머리를 굴려 본다. "약간 요동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선 이게 정상이야. 헌데 맑은 하늘과 이 정도 고도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노선 내내 난기류를 받다니. 바람은 전혀 잦아들려 하지 않고. 그러니 시속 300킬로미터에서 속도를 더 올려야 할 것인가." 어쨌거나 더 이상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니, 구름을 벗어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해 보도록 하자.

그러다 구름에서 벗어난다. 돌연 꽃다발이 사라져 버린다. 그 사라짐이 내게 사고를 예고한다. 정면을 주시해 본다. 그러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러 하늘과 다음 뭉게구름 벽 사이 하늘로 난 좁은 계곡이 눈에 들어온다. 꽃다발은 벌써 되살아나 있다.

이제는 이 끈끈이를 빠져나갈 수 없다. 단 몇 초 동안만은 예외로 하자. 비행 세 시간 삼십 분간을 맞이하자 이 끈끈이가 불안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내 예상대로 전진해 왔다면 나일 강에 가까이 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운만 약간 따라 주면 어쩌면 좁은 수로들을 가로질러 나일 강을 볼 수도 있겠건만, 수로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혹시라도 생각보다 저속으로 더디게 날아왔다면 나는 여전히 고지 상공을 날고 있으리라.

아직 불안감이 엄습하지는 않는다. 걱정거리라면 단지 시간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까. 하지만 나의 침착함의 한계를 정해 본다. 네 시간 십오 분간을 비행하였다. 이 시간이면 설사 무풍 속에서라도, 무풍이란 것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나일 계곡을 넘었을 것이다.

구름의 어렴풋한 경계 부분에 이르자 그 꽃다발은, 점점 더 속도를 내서 깜박이며 빛을 발하다 돌연 꺼져 버린다. 밤의 악마들이 나누는 이러한 암호 교신은 딱 질색이다.

정면으로 마치 등대처럼 반짝이는 푸른 별이 하나 출현한다. 이것이 별인지 등대인지? 이 초자연적인 빛, 이 마왕의 별, 이 위험천만한 초대도 이제는 넌더리 난다.

프레보가 깨어나 엔진 계기판에 불을 비춘다. 나는 프레보와 그의 전등을 밀친다. 이제 막 두 구름들의 단층부에 이르렀으니 이를 기회 삼아 아래쪽을 관찰해야겠다. 프레보는 도로 잠이 든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네 시간 오 분째 비행 중. 프레보가 다가와 내 곁에 앉는다.

"카이로에 이르렀을 시간인데…."

"그러게 말이지…."

"저건 별이야, 등대야?"

나는 엔진을 좀 줄여 보았다. 아마도 그 소리에 프레보가 깬 듯싶다. 그는 그 다양한 비행 소음 모두에

민감하다. 운집한 구름 아래로 빠져 나가기 위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한다.

방금 내 지도를 훑어보았다. 어쨌거나 나는 고도 제로[6]에 이르렀다. 아무 위험도 감수할 것이 없다. 계속 하강하여 정북으로 기수를 돌린다. 이렇게 나는 기내 창들을 통해 도시들의 불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도시들을 지나쳤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도시들은 아마 좌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 지금은 뭉게구름 속을 날고 있다. 그래도 좌측으로 더 낮게 내려앉고 있는 또 다른 구름을 따라가 본다.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기수를 북북동으로 돌린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구름이 더욱 하강하는 바람에 지평선 전체가 가려져 버린다. 더 이상의 하강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 고도계로 400지점에 이르렀지만 이 지점의 기압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프레보가 몸을 숙여 살핀다. 그에게 소리친다. "바다까지는 날아 보자. 바다까지는 기어코 내려가야 해, 충돌을 피하려면 말이지…."

더구나 이미 항로를 벗어나 바다로 흘러든 것은 아닌지 검증할 방도조차 없다. 이 구름 아래의 어둠은 매우 정확하게 침투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몸을 창 쪽으로 밀착시킨다. 내 아래쪽을 읽어 보려 시도한다. 불빛과 신호를 발견하려 애써 본다. 나는 재를 뒤적거리는 사람이다. 나는 화로 밑바닥에서 생명의 잉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다.

"등대잖아!"

우리는 동시에 이 깜박거리는 함정을 본 것이다. 얼마나 미친 짓이었던가! 밤의 발명품, 이 유령 등대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것인가? 왜냐면, 프레보와 내가 우리 날개 아래로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등대를 찾으려고 몸을 숙인 바로 그 순간, 돌연…

"아아!"

분명 나는 이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우리 세상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엄청난 폭음 말고는 다른 그 어느 것도 감지한 것이 없었다고 확신한다. 시속 270킬로미터로 맨땅을 들이받고 만 것이다.

확신하건대 그 뒤 1/100초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리 둘이 함께 말려 들어간 폭발로부터 발생한 거대한 자주색 별뿐이었다. 프레보도 나도 감정 따윈 하나도 느끼지 못하였다. 내가 내 자신 내부에서 예의 주시한 것은 그저 빗나간 기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속으로 사라져 버릴 이 눈부시게 빛나는 별에 대한 기대뿐이었다. 그런데 자줏빛 별은 원래 없었던 것이다. 창을 뜯어 내고, 강판을 100미터씩이나 날려 보내고, 우리 창자를 그 울림으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 조종실을 초토화시킨 일종의 지진이 있었다. 비행기는, 멀리서 날아와 단단한 나무에 박힌 비수처럼 몹시 요동치고 있었다.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아수라판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1초, 2초… 비행기는 계속 요동쳐 댔다. 그래서 나는 끔찍하게 애를 태우며 비행기에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 비행기가 유탄처럼 폭파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땅 아래 진동은 결정적인 분화로는 이어지지 못한 채 질질 시간을 끌고 있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요동, 이 분노, 어디서 끝날지 모를 이 유예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길이 없었다… 5초, 6초…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회전하는 느낌이 들었고, 창문으로 우리 담배를 내팽개치고 오른쪽 날개를 산산조각 내 버린

6 두려워할 만한 장애물이 없는 고도.

그 충격이 느껴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얼어붙은 정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프레보에게 소리쳤다.

"빨리 뛰어 내려!"

동시에 프레보도 외치고 있었다.

"불이야!"

이미 우리는 튕겨 나간 창에 달려 날아간 것이다. 20미터 떨어진 곳에 우리가 서 있었다. 프레보에게 말하였다.

"아픈 데는 없어?"

그는 대답하였다.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물러 봐, 움직여 보라고, 정말 부러진 데가 없는지 확실하게 말해 보라고…."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비상 펌프 이놈이…."

나는 그가 머리부터 배꼽까지 몸이 갈라져 이내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는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내게 반복해서 말하였다.

"비상 펌프가…."

나는 생각하였다. 드디어 이놈이 미쳤구나. 춤추려 들겠지…

그런데, 결국 화재를 간신히 모면한 기체로부터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고는 다시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비상 펌프에 무릎이 깨졌어요."

III

우리가 살아 있다니 불가사의한 일이다. 손에 전등을 들고 땅 위로 난 비행기 자국을 밟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도착 지점으로부터 2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미 우리는, 미끄러져 가는 내내 비행기가 모래 위에 튀겨 놓은 휘어 버린 고철과 강판을 발견한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어느 적막한 고원지대의 완만한 비탈에 거의 접선 형태로 충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충돌 부분의 모래 속에 팬 구멍이 꼭 쟁기날에 팬 구멍을 닮았다. 비행기는 전복되지 않은 채 분노를 머금고 뱀 꼬리처럼 꿈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시속 270킬로미터로 비행기가 기어간 것이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아마 이 모래 위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볼베어링 기능을 하는 검고 둥근 돌멩이들 덕택인 듯하다.

프레보는 뒤이어 발생할지도 모르는 누전 화재의 예방을 위해 축전지들을 절단하고 있다. 나는 엔진에 등을 기대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네 시간 15분 내내 고공에서 시속 50킬로미터의 바람을 맞았을 터이고, 실제로

요동을 쳐 대기도 것이다. 그런데 기상 예보 이후에 바람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저히 그 바람이 불어 간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측면 400킬로미터짜리 정사각형 범위 내에 들어앉은 셈이다.

프레보가 곁에 다가와 앉으며 말한다.

"살아 있다니 참 대단하네요…."

나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혀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사소한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가 싶더니 벌써 내 머릿속을 활보하면서 미미할 정도이긴 하나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기준점을 삼기 위해 프레보에게 회중 전등을 켜놓게 하고, 내 전등을 손에 들고 곧장 앞으로 이동한다. 나는 유심히 바닥을 본다. 천천히 나아가면서 크게 반원을 그리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꾼다.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라도 하듯이 나는 여전히 바닥을 샅샅이 뒤져 본다. 조금 전만 해도 잉걸불을 이렇게 찾고 있었다. 내가 들고 가는 불빛이 만들어 놓는 흰 동그라미 위로 몸을 숙이고 계속 어둠 속으로 나아간다. 생각대로군… 생각했던 대로야… 천천히 비행기 쪽으로 다시 올라간다. 조종실 옆에 앉아서 나는 생각에 잠긴다. 희망의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 생명이 제공하는 어떤 징후를 찾았으나 생명은 아무런 징후도 드러내지 않았다.

"프레보, 풀이라곤 쥐뿔도 안 보이는구만…."

프레보는 묵묵부답이다.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날이 밝으면 이 이야기를 다시 주고받게 되겠지. 나는 그저 심한 권태로움을 느끼고 생각에 잠긴다.

"사막 한가운데 400킬로미터 지점이라…." 갑자기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물!"

휘발유탱크도 오일탱크도 터졌다. 우리 물탱크 또한 그렇다. 모래가 이들을 몽땅 마셔 버렸다. 박살이 난 보온병 안에 1/2리터의 커피와, 또 하나의 보온병 안에 1/4리터의 백포도주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액체들을 걸러서 한데 섞어 본다. 또 약간의 포도와 오렌지 하나를 찾아낸다. 하지만 계산을 해 본다.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다섯 시간만 걸어도, 거덜날 텐데…."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조종실에 자리를 잡아 본다. 나는 드러누워 잠을 청해 본다. 잠에 빠져 들며 우리가 저지른 모험을 결산해 본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마실 것이라곤 1리터도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벵가지 – 카이로 노선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영역에 있다면, 발견되는 데 1주 정도 걸릴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너무 늦어 속수무책일 것이다. 반면 우리가 노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우리를 찾아내는 데 6개월은 걸릴 것이다. 비행기에 기대를 걸 일도 아니다. 3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뒤지고 다녀야 할 테니까.

"아아! 유감인걸…." 프레보가 말하였다.

"그건 왜?"

"한 방에 깨끗이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빨리 포기할 수는 없다. 프레보와 나는 다시 기운을 차린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비행기에 의한 기적에 가까운 구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더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혹시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오아시스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오늘 하루 내내 걸어보자. 그리고 우리 비행기로 되돌아오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 계획을 대문자로 모래 위에 크게 새겨 놓자.

그래서 나는 몸을 곱송그리고 누워 새벽까지 잠에 빠져들 것이다. 잠든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 나의 피로 때문인지 내 주위를 여러 사람들이 감싸고 있다. 사막 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내 반쯤 든 잠은 목소리들이며, 추억들이며, 속삭이는 속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아직은 목도 마르지 않고, 기분도 좋고 하니, 모험에 맡기듯 나를 잠에 맡긴다. 꿈 앞에서는 현실도 자신의 입지를 잃고 마니…

아아! 하지만 날이 밝자 상황은 영 딴판이었다…

Ⅳ

나는 사하라를 무척이나 사랑하였다. 비투항 지역에서 며칠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다 위에서처럼 바람이 일군 파도 자국이 새겨진 그 금빛 공간에서 나는 깨어났다. 거기 비행기 날개 밑에서 수면을 취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굽은 언덕의 허리 부분으로 걸어간다. 바닥에는 온통 반짝거리는 검은 조약돌 한 층으로 뒤덮인 모래가 깔려 있었다. 마치 금속 비늘처럼 보였다. 우리를 둘러싼 온 모래 돔들이 갑옷처럼 번쩍거리고 있다. 우리는 광물의 세계 속으로 추락한 것이다. 철의 풍광에 갇혀 버렸다.

첫 마루를 넘어서니 더 멀리 검게 빛나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마루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선을 남기기 위해 발로 땅을 긁어 대며 걷는다. 우리는 해를 마주하고 전진한다. 정동 방향으로 전진하기로 결정 내린 것은 논리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왜냐하면 기상 예보, 비행 시간 등 모든 상황이 내가 나일 강을 건넜다고 믿게끔 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짧은 거리나마 서쪽 방향으로의 진로도 시도는 해 보았지만,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서쪽은 내일로 미루어 놓았다. 바다로 이어지기는 길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남쪽도 포기하였다. 사흘 후 절반 정도 얼이 빠진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기체를 포기하고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줄곧 곧장 앞만 보고 걷기로 결심했을 때에도, 우리는 동쪽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북동이라 하겠다. 이것은 모든 기대에 어긋나는 것처럼 모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단 구조되고 나면 다른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되돌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북쪽으로 향했더라면 너무 탈진한 나머지 채 바다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아무리 불합리하게 비칠지라도 오늘날 돌아보건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지표도 없었던 만큼, 내가 이 방향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이 방향이 내가 그토록 친구 기요메를 찾아 헤매던 안데스 산맥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한 방향이라는 이유에서였던 것 같다. 막연하긴 하지만 나로서는 이 방향이 생명의 방향이 되어 버린 셈이다.

다섯 시간 동안 걸으니 경치가 변한다. 모래 여울이 골짜기 안으로 흐르는 것 같아 우리는 이 골짜기 바닥을 빌리기로 한다. 우리는 큰걸음으로 걸어간다. 최대한으로 멀리 가야 하고, 아무것도 발견 못 한다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갑자기 내가 멈춰 섰다.

"프레보"

"뭐?"

"발자국 말이야…."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가 온 길 뒤로 발자국 남기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인가? 만일 발자국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 돌아섰다. 어느 정도 멀리 돌아가면 처음 진행하던 방향에서 직각으로 우회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 발자국이 남아 있는 지점에서 그 발자국들을 가로질러 갈 것이다.

밟고 온 궤적을 연결시키고 나서 우리는 다시 출발한다. 열기가 상승하고, 그와 더불어 신기루들이 출현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직 평범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호수들이 자리를 잡더니 우리가 다가가자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모래 골짜기를 넘어, 가장 높이 치솟은 돔에 올라 지평선을 관측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벌서 여섯 시간째 걷고 있다. 보폭을 크게 잡아 총 35킬로미터는 걸었음에 틀림없다. 그 시커먼 산등성이 정상에 올라 조용히 주저앉는다. 우리의 모래 골짜기는 우리 발치 아래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는 사막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빛나는 하얀 광채가 우리 눈을 마비시킨다. 까마득히 보이는 것이라곤 그저 허공뿐이다. 하지만 지평선에는 빛이 벌이는 장난으로 벌써부터 더욱 산만한 신기루들이 형성되고 있다. 요새들이며, 회교 사원의 첨탑들이며, 수직선의 기하학적인 집합들 말이다. 나는 초목을 가장한 거창한 검은 반점도 주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낮이면 해체되었다가 밤이면 다시 생겨날 저 구름들 맨 뒤로 솟아 있다. 그것은 뭉게구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진군은 무모하다. 이런 식으로 시도해서는 그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우리 비행기로 돌아가야 한다. 어쩌면 비행기의 붉고 흰 항공 표지가 동료들에게는 표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탐색들에 조금도 희망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만이 구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기에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마실 거리를 남겨 두고 왔으며, 또 이미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마셔야만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철원鐵圓에 갇혀 버렸다. 우리는 갈증이라는 단기 절대권에 갇힌 포로인 것이다.

행여 생명을 향해 진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군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신기루 피안은 아마도 지평선이며, 진짜 도시들이며 담수 운하들이며 목장들로 넘칠지 모른다. 회귀하는 것이 옳음을 알고는 있다. 그럼에도 나로서는 이 끔찍한 방향 전환을 마주하고 파멸해 간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비행기 곁에 드러누웠다. 돌아다닌 거리만 해도 60킬로미터가 넘는다. 이제 마실 것도 다 떨어졌다. 동쪽으로는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동료도 하나 없었다. 얼마 동안 버텨 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이렇게 갈증이 심하니…

우리는 박살난 비행기 날개 파편들을 주워 모아 대형 봉화대를 쌓았다. 휘발유와 강렬한 흰빛을 발하는 마그네슘 철판을 마련하였다. 불을 붙이기 위해 칠흑 같은 밤이 되길 기다렸다… 도대체 이 불을 눈여겨봐 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제 불꽃이 치솟는다. 우리는 사막에서 타오르는 우리의 등불을 경건하게 응시한다. 조용히 반짝이는 우리의 메시지가 밤하늘에 빛나는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이미 비장한 구조의 외침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그 애정도 듬뿍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마실 것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밤 또 다른 불을 지펴야 한다. 사람들만 불을 지필 수 있다. 사람들이여 우리에게 응답하라!

아내[7]의 두 눈이 다시 보인다. 아내의 얼굴에서 그 두 눈 말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리. 그 눈이 묻고 있다. 혹시라도 나와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시 보인다. 그리고 그 눈들도 묻고 있다. 이 모든 시선들이 모여 나의 침묵을 꾸짖는다. 나는 응답하고 있는데! 정말 응답하고 있는데! 사력을 다해 응답하고 있기에, 이보다 더 찬란한 불꽃들을 어둠 속으로 던져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나로서는 내게 가능한 것을 실천하였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실천하였다. 거의 마시지도 않고 60킬로미터나 걸었으니 말이다. 이제는 더 마실 수도 없을 것이다. 진정 더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잘못이란 말인가? 현명하게 수통이나 빨아 대며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주석 컵 바닥을 빠는 순간부터 시계가 재깍거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마지막 한 방울을 빨아들인 그 순간부터 나는 경사면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강물처럼 나를 실어 가고 있다면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프레보는 울고 있다. 그 어깨를 도닥거려 준다. 위로차 말을 건네 본다.

"끝장난 거라면 끝장난 거지 뭘 그래…."

그가 내게 대답한다.

"내 자신이 안쓰러워 이러는 줄로 여긴다면 오산이지…."

그래! 물론 그렇지.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감내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그리고 모레, 정말로 감내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라면 절반 정도 신뢰한다. 나는 이미 성찰한 바 있다. 어느 날인가 조종실에 갇힌 채 이제 빠져 죽는구나 하고 여기던 때조차 그다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가끔 얼굴이 으깨지는구나 하고 여긴 적도 있다. 그러나 조금도 그것을 대단한 사건으로 여긴 적은 없다. 이번에도 공포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이 점에 관해 더욱 기이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큰불을 지펴 놓았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으리라는 기대를 접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 아무도 없지 않는가!…

"내 자신이 안쓰러워 이러는 줄 생각한다면 오산이지 …." 그래, 그래, 이것이 바로 감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기다리는 눈들을 다시 볼 때마다 불에 데는 듯한 느낌이 다시 일어난다. 일어서서 앞으로 곧장 달리고 싶은 욕망이 불쑥 일어난다. 거기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마치 난파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이하게도 주객이 전도되기는 했지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 완전한 확신을 위해서는

---

[7] Consuelo Suncin Sandoval de Gómez(1901-1979). 생텍쥐페리의 뮤즈. 엘살바도르의 아르메니아 명문가 출신. 보헤미안 아티스트. 샌프란시스코 미술 학교 수학 당시 멕시코 군인인 첫 남편과 이혼(22세). 멕시코 권력자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정부가 되어 파리 진출. 과테말라 외교관 작가 엔리케 고메즈 카밀로와 재혼. 남편과 사별 후 파리 예술계를 떠나 아르헨티나에서 방랑의 삶을 살던 당시,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살롱전에서 아르헨티나 '아에로포스탈' 지사장으로 부임한 생텍쥐페리를 만나 첫 눈에 반함. 글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 생텍스와 1931년 프랑스 니스에서 결혼, 가난과 갈등으로 점철된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집필을 독려함. 생텍쥐페리 사후 자신의 죽음 직전까지 30년 동안 매주 토요일,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씀. 두 사람의 사랑을 다룬 《전설적 사랑*Un amour de légende*》(Les Arènes, 2005) 출간됨.

프레보가 필요했다. 그렇긴 해도 프레보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저 단말마의 공포를 알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을 터이고, 나 역시도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아! 나는 잠자코 잠에 빠져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룻밤 동안이건 수세기 동안이건 하여튼 나는 잠들련다. 잠만 들면 나는 그 차이를 전혀 모른다. 게다가 얼마나 평화로운 잠인가! 그러나 저기 저곳에서 사람들이 외쳐 댈 그 울부짖음, 그 크나큰 절망의 불꽃들… 그 모습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 난파의 국면을 앞두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시시각각의 침묵이 내가 사랑하는 얼마 정도의 사람들을 학살해 간다. 심한 격노가 내 속에서 뻗쳐 오른다. 어째서 이 사슬들은 제때에 이르러 빠져 죽어 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방해가 되는가? 어째서 우리가 지핀 불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세계 끝까지 전해 줄 수 없는 것인가? 참자!…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다니까!… 우리가 구조대다!

마그네슘이 연소되고 우리의 불빛은 불그스레해졌다.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그 위에 숙이고 앉아 몸을 덥히는 한 무더기의 불잉걸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불빛으로 전하는 메시지도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래! 그것이 움직이게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기도를 두고 왈가왈부하였던 것이다.

아무려면 어떤가. 나는 좀 자야겠다.

V

새벽녘에 우리는 비행기 날개 윗부분을 걸레로 훔쳐 내어 페인트와 기름이 뒤섞인 물 한 모금을 받아 냈다. 구역질이 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셨다. 어찌 할 도리가 없었지만 적어도 입술 정도는 축인 셈이다. 야단법석을 떨고 나니 프레보가 내게 말한다.

"다행히 권총이 있긴 하군."

불쑥 욱하는 심정이 일어나 적개심을 품은 채 그에게 몸을 돌린다. 바로 그 순간 감정 표출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내게는 없었을 듯하다. 모든 것이 단순하다고 여기는 것이 절실하다. 탄생이란 단순하다. 그리고 성장 또한 단순하다. 그리고 갈증으로 죽는 것도 단순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를 두드려 패기라도 할 요량으로 흘겨본다. 프레보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프레보가 아무 감정 없이 냉정하게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위생 문제를 언급하고 있던 것이다. 마치 "우린 손부터 씻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려고 했기라도 하듯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합의를 본 셈이다. 이미 어제 나는 권총 가죽 케이스를 보며 깊이 생각한 바 있다. 내 성찰은 로고스적인 것이지, 파토스적인 것은 아니었다. 파토스적인 것은 개인적 인간이 아닌 사회적 인간에게만 해당된다. 파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다. 권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전히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엉뚱한 데서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아마 아라비아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내일까지 비행기 소리라곤 전혀 듣지 못할 것이고, 그때는 이미 우리가 우리 비행기를 버리고 난 후가 될 것이다. 저 먼 곳으로 비행기 한 번 날아간다 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랴. 보이는 것이라곤 사막에 깔린 천 개의 까만 점들 사이에 섞인 두 개의 까만 점들뿐, 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고통에 관해 사람들이 내게 지닐 수도 있는 생각들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구조대가 또 다른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략 3천 킬로미터 영역 내에서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사막에 있는 비행기를 발견하려면 2주간의 수색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트리폴리타니아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것이라곤 기대도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오늘도 여전히 이 알팍한 운에 대한 기대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술을 전환하여 단독 탐험에 나서기로 결정 내린다. 프레보는 불을 준비할 것이고, 누가 찾아오는 경우 불을 지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올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래서 떠난다. 되돌아올 여력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리비아 사막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떠오른다. 여기 리비아 사막 습도가 18퍼센트로 떨어질 때도, 사하라 습도는 40퍼센트를 유지한다. 그리고 생명은 수증기처럼 증발해 간다. 베두인족,[8] 여행객, 식민지군 장교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열아홉 시간은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스무 시간이 경과하면 눈이 환하게 빛나면서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갈증의 경과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그러나 이 북동풍,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모든 예측과는 반대로 우리를 이 고원에 고립시킨 이 기이한 바람이 지금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나 보다. 하지만 바람 덕분이라고 해도 최초의 빛으로 눈이 부시게 되기까지 얼마 동안이나 이 목숨이 부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떠난다. 하지만 마치 카누에 몸을 싣고 대양을 항해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여명 덕분에 이 풍경의 을씨년스러움이 덜해 보이는 듯하다. 처음에는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서리꾼처럼 걸어간다. 어제 저녁 우리는 알 수 없는 몇몇 땅굴 입구에 올가미를 놓았다. 그러자 내 안에 밀렵꾼이 깨어났다. 나는 우선 올가미들을 확인하러 간다. 그것들은 텅 비어 있다.

따라서 나는 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리라.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실망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이 동물들은 도대체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들은 아마 '페넥'[9] 혹은 사막 여우들이라고 하는, 토끼 크기만 하고 커다란 귀가 달린 조그만 육식동물일 것이다. 충동에 이끌려 그들 중 한 놈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 본다. 그 발자국들은 나를 좁은 모래 여울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발자국 모두가 더욱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나는 부챗살 문양의 세 발가락이 이루고

---

[8] Bédouins.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중근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반사막 일대에 사는 아랍계 유목민. '바다빈'이라는 아랍어를 서구인들이 잘못 알아 듣고 옮긴 말. 원래 도시가 아닌 사막 유목민을 일컫는 말.

[9] féneck(fennec, fennek). 여우를 닮은 귀가 크고 작은 짐승, 아프리카 여우라 불림.

있는 예쁜 종려나무 모습에 감탄하고 만다. 내 친구가 새벽에 살금살금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돌 위에 내린 이슬을 핥아먹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쪽 발자국은 성글다. 내 페넥이 뛴 것이다. 여기에 동료 하나가 찾아와 합세하여 나란히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닌 것이다. 이렇게 요상한 기쁨을 느끼며 나는 그 아침 산책을 응시한다. 이 생명의 징후들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잠시 갈증을 망각한다…

드디어 나는 내 여우들의 식량 저장고에 이른다. 여기에는 100미터마다 수프 그릇만 한 것이, 줄기에는 자그마한 황금빛 달팽이가 들러붙어 있는 작은 관목이 모래 표면 위로 솟아 있다. 페넥은 새벽에 먹을거리 구매에 나선다. 그런데 나는 이 지점에서 자연의 거대한 신비에 봉착하고 말았다.

내 페넥이 관목마다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달팽이들이 달린 나무라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눈에 띄리만치 신중하게 나무 주위를 돌기만 하기도 한다. 가까이 다가서더라도 훼손시키지 않는 나무도 있다. 그놈은 거기서 두세 개의 달팽이 껍질만 따고는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다.

놈은 아침 산책을 좀더 오래 즐기려고 단번에 허기를 가라앉히지 않는 게임을 즐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의 게임은 불가결한 전술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 만약에 페넥이 첫 번째 관목의 산물을 게걸스럽게 먹어 버린다면 두세 번 끼니만으로도 그 나무에 산 채로 들러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결딴나 버릴 것이다. 이렇게 놈은 한 그루 한 그루씩 그의 작물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페넥은 파종에 방해가 안 되도록 유념한다. 그놈은 단 한 끼 식사를 위해 이 갈색 싹들을 찾아 백 그루를 헤맬 뿐 아니라, 같은 가지에 나란히 붙어 있는 껍질을 한꺼번에 둘이나 따는 일도 절대로 없다. 모든 것이 마치 그놈이 위험을 경계하고 있기나 한 듯이 벌어진다. 만일 페넥이 대책 없이 포식한다면 달팽이는 사라질 것이다. 달팽이 씨가 마르면 페넥 씨도 바를 것이다.

발자국을 따라가니 땅굴에 이른다. 아마도 페넥은 거기서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내 요란한 발자국 굉음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여우에게 말한다. "귀여운 내 여우 새끼, 난 이제 끝장났거든. 하지만 말이야, 그 때문에 네 기절에 흥미를 잃은 건 아니거든…."

그리고 거기 서서 생각에 잠겨 보니 사람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30년 후면 죽겠지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기쁨을 잡치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30년이냐, 사흘이냐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이미지들은 마음에서 지워 버려야 한다…

이제 내 길을 계속 간다. 그리고 벌써 피로가 몰려오면서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다. 신기루가 생긴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신기루를 만들고 있다…

"어이!"

나는 소리치며 두 손을 치켜 올렸다. 그러나 손짓하던 그 사람은 시커먼 바위에 지나지 않았다. 사막에는 벌써 모든 것이 생기를 띠고 있다. 나는 잠들어 있던 저 베두인족을 깨우고 싶었다. 그러자 그는 검은 나무줄기로 변하였다. 나무줄기로 변한다고? 이 존재에 놀라 나는 몸을 숙인다. 부러진 가지를 주우려 하다 보니 그것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다시 일어나 내 주위를 살핀다. 다른 검은 대리석들이 보인다.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있던 숲이 그 부러진 줄기들을 땅 위에 뿌려 놓은 것이다. 천지창조 때 폭풍으로

무너진 대성당처럼 이 숲도 10만 년 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세기에 걸쳐 닦이고, 화석화되어, 잉크 빛으로 물든 강철조각 같은 거대한 이 기둥 토막들이 내게까지 굴러온 것이다. 나는 아직 가지의 마디마디를 식별할 수 있고, 생명의 비틀림을 알아볼 수 있고, 몸통의 나이테를 계산할 수 있다. 새와 음악 소리로 가득 찼던 이 수풀이 저주의 충격으로 소금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 풍경이 내게는 적대적으로 느껴진다. 구릉들을 뒤덮고 있는 저 시슬 갑옷보다도 더 어두침침한, 이 장엄한 잔해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내가 이 썩지 않는 대리석 틈에 끼어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죽어 없어질 나, 그 시신이 먼지로 분해되어 버릴 내가 여기 영원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어제부터 나는 거의 80킬로미터를 돌아다녔다. 이 현기증은 필시 갈증에서 오는 것이리라. 아니면 태양 때문이든지. 기름 먹인 듯한 줄기에 태양이 내리쬔다. 태양은 이 세상의 딱딱한 껍질 위로 내리쬔다. 이제 여기에는 모래도, 여우도 없다. 여기 있는 것은 오직 거대한 모루뿐이다. 나는 이 모루 위를 걷고 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태양이 모루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느껴진다. 아아! 저쪽에…

"어이! 어이!"

"저쪽은 아무것도 없다. 침착해라, 정신착란이야."

이성을 회복할 필요를 느끼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본 것이다. 나로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기가 그토록 힘들다. 행진하는 대상들을 향해 뛰지 않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 저기… 보이잖아!…

"멍청하긴, 네 작품이란 걸 너도 잘 알면서…."

"그렇다면, 세상에 진실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20킬로미터 떨어진 언덕 위 저 십자가 외에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십자가, 혹은 저 등대 말고는…

그러나 바다는 그쪽이 아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겠지. 밤새도록 지도를 탐구하였다. 작업은 쓸모가 없었다. 내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게 인간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들은 모두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어디엔가 십자가 비슷한 것이 달린 조그만 원을 찾아냈었다. 범례를 참고하니 "종교 건물"이라고 씌어 있었다. 십자가 옆에는 검은 점이 하나 보였다. 다시 한 번 범례를 참고하였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마음에 크나큰 충격을 받아 목이 터져라 소리 내어 읽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에 비하면 알라바바와 그 보물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하얀 원을 둘이나 발견하였다. 범례에는 "일시적 우물"이라고 씌어 있었다. 벌써 그 대단함이 줄어든다. 그리고 주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내 종교 시설이다. 수사들이 난파된 사람들을 부르려고 언덕 위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웠다! 그러니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걷기만 하면 된다. 그 도미니크회 수사들에게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뿐이다…

"헌데 리비아에는 콥트파[10] 수도원밖에 없는데."

---

10 Coptes. 이집트의 그리스도교, 비이슬람화 이집트인 즉 토착 그리스도교를 계속 믿는 이집트인을 킵트라 하는데 이 명칭이 유럽으로 건너가 콥트라는 말로 변하여 세계에 유포되었다.

"…이 근면한 도미니크회 수사들을 향해 달리는 거지. 그들은 붉은 타일 깔린 서늘하고 아름다운 부엌을 가졌고, 마당에는 녹슨 경이로운 펌프가 있지. 녹슨 펌프 밑에는, 녹슨 펌프 밑에는, 그대도 짐작한 바와 같이… 녹슨 펌프 밑은 영원한 우물이지! 아아! 문에 달린 초인종을 누르고, 큰 종을 잡아당기면 그야말로 거기서는 큰 잔치판이 벌어질 거고."

"이 바보야, 너는 프로방스에 있는 집을 그리고 있잖아, 게다가 집에 무슨 종이 있다고."

"… 커다란 종을 당기면! 문지기가 두 팔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하겠지. '당신은 주님의 사자시군요!' 하고 내게 소리치면서 모든 수사들을 부르겠지. 그러면 수사들이 달려올 거고, 그리고 가련한 아이를 맞아들이듯 축연을 베풀겠지. 그리고 나를 부엌으로 밀고 갈 거야. 그리고 '잠깐, 잠깐, 내 아들아… 영원한 우물까지 달려가 보자…'."

"그러면 나는 행복에 겨워 부르르 몸을 떨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언덕 위에 십자가가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서쪽과의 약속은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정북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쪽은 적어도 바다의 노래로 가득하지 않은가.

아아! 이 능선 너머로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여기 있구나.

"그거 신기루라는 걸 잘 알면서…."

신기루임을 잘 알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속을 수 없지! 그러나 신기루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싶다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다면! 온통 햇살 넘치는 총안 형태의 저 도시를 사랑하고 싶어진다면! 이제는 피로도 모른 채 행복에 겨운지라, 민첩한 걸음으로 곧장 걷고 싶어 한다면… 프레보와 그의 권총이라니, 웃기지 마라! 나는 내 취기가 좋다. 나는 취하였다. 목이 타는구나!

황혼이 내 취기를 깨웠다. 이토록 멀리 왔다는 감이 들자 갑자기 두려움에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황혼에는 신기루가 사라진다. 지평선은 그 펌프며, 그 궁궐이며, 그 성의를 벗어 던졌다. 그것은 사막의 적막한 지평선이다.

"낮 동안은 정말 잘 해냈다! 이제 밤이 너를 껴안으면, 새벽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내일이면 네 발자국들은 지워지고, 그러면 아무 데도 너의 자취는 없게 되는 셈이지."

"그러니 걸을 수 있는 만큼 더 앞으로 걷자… 이제 와서 뭐하러 돌아선다는 말인가? 바다 쪽으로 두 손을 내미려는 지금, 어쩌면 벌써 내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때 방향을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어디 바다가 보였는데? 게다가 넌 결코 바다에 이를 수 없어. 아마 여기서 300킬로미터 이상은 떨어져 있을걸. 그리고 프레보가 '시문' 옆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게다가 어쩌면 대상들이 프레보를 찾아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우선 사람들을 부르자.

"어이!"

제길, 이 지구에 그래도 누군가는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어이! 이 사람들아!…"

목이 쉬어 버렸다.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온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나는 정말 바보다… 한 번 더 질러 본다.

"사람들아!"

뱅 튀겨진 거들먹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돌아선다.

두 시간을 걷고 나니, 내가 헤매는 줄 알고 겁먹은 프레보가 하늘로 쏘아 올리는 불꽃이 보였다. 아아! 그건 정말 내 관심을 끌지 못한다…

다시 한 시간을 더 걸었다…. 500미터만 더 가 보자. 100미터만 더. 5미터만 더.

"아!"

나는 놀라서 멈춰 섰다. 마음은 환희에 넘쳐흐르지만 그 강렬함을 자제해 본다. 프레보가 환한 불빛 속에 엔진에 기대선 아랍인 둘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프레보는 아직 나를 보지 못하였다. 스스로의 기쁨에 너무 빠져 버린 것이다. 아아! 나도 프레보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을… 그러면 벌써 구조되었을 텐데! 환희에 겨워 외쳐 본다.

"어이!"

두 베두인족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본다. 프레보가 그들을 놔두고 혼자 와서 나를 마주한다. 나는 팔을 내민다. 프레보가 내 팔꿈치를 붙든다. 내가 쓰러지려고 했단 말인가? 내가 그에게 말한다.

"결국, 해냈군."

"뭘요?"

"아랍인들 말이야!"

"웬 아랍인들?"

"거기 자네하고 함께 있는 아랍인들 말이야!…"

프레보는 나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마지못해 내게 의미심장한 비밀이라도 털어놓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

"아랍인들이 어딨어…."

아마도 이번에는 내가 눈물을 쏟으려나 보다.

Ⅵ

여기에서는 물 없이 열아홉 시간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저녁 이후 무엇을 마셨던가? 새벽이슬 몇 방울 마신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여전히 북동풍이 불고 있어 우리의 증발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 이 바람이 이루는 차단막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의 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아! 구름들이 우리에게까지 떠내려 와서 비가 되어 내린다면! 그러나 사막에 비가 내리는 법은 절대 없겠지.

"프레보, 낙하산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 내자. 잘라 낸 천 조각들을 땅에 깔고 돌로 눌러 놓자. 그리고 새벽까지 바람이 바뀌지만 않으면 새벽에 이 조각들을 쥐어짜서 휘발유 탱크 가운데 하나에 이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여섯 개의 흰 천 조각들을 별 아래 늘어놓았다. 프레보는 탱크 하나를 뜯어냈다.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프레보가 잔해 속에서 기적의 오렌지를 하나 찾아냈다. 오렌지를 나눈다. 나로서는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물이 20리터 정도 필요한 지경에 이것은 정말 하찮은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불 옆에 누워서 나는 이 반짝이는 과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오렌지라는 것을 모른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확신조차도 내 기쁨을 상쇄시킬 수는 없다. 내 손에 움켜진 이 오렌지 반쪽이 내게 삶에서 가장 큰 기쁨 하나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등을 대고 누워 내 과일을 빨아 대며 별똥별들을 헤아려 본다. 여기 있는 나는 순간적으로나마 무한히 행복하다. 나는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가 연명하는 질서 속의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갇혀 보지도 않은 채 세상을 어림칠 수는 없다." 오늘에야 비로소 피선고인의 담배 한 대, 럼주 한 잔이 이해된다. 피선고인이 그 비참한 상황을 감내한다는 생각 자체를 품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거기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가 미소 짓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그가 용감하다고 미루어 본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럼을 마시기에 웃는 것이다. 그가 관점을 바꾸어 그 마지막 순간을 인생 자체로 삼았음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았다. 아마 2리터 정도는 될 듯싶다. 이제 갈증 끝! 우리는 구조되었다. 우리는 계속 마셔 댈 것이다!

나는 탱크에서 주석 컵으로 하나 가득 물을 퍼낸다. 그러나 이 황록빛 물이란 것이 첫 모금부터 그 맛이 얼마나 끔찍한지 갈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모금을 다 비우기 전에 숨을 내몰아 쉰다. 흙탕물이라도 퍼마실 지경이다. 그런데 이 유독성 금속 맛은 갈증보다 더 지독하다.

프레보를 보니, 그는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기나 하듯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자리를 맴돌고 있다. 별안간 몸을 숙이더니 계속 맴돌다 토한다. 30초 지나서 내 차례가 왔다. 어찌나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는지 무릎을 꿇고 모래 속에 손가락을 박고 토한다. 서로 말도 못한다. 15분 동안 이렇게 요동하면서 그대로 엎드려 약간의 담즙만 토해 낼 뿐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느껴지는 것은 아득한 구토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희망도 날아갔다. 우리의 실패가 낙하산 방수 도료 때문인지 탱크 바닥에 낀 사염화탄소 때문인지 나는 모른다. 우리에겐 다른 그릇이나 다른 헝겊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두르자! 날이 밝았다. 출발이다! 이 저주받은 고원을 피해서 쓰러질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걸어가 보자. 안데스 산맥에서의 기요메를 본받자. 어제 저녁부터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더라니. 나는 비행기 잔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불문율을 파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난파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님을. 난파당한 사람들이란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의 침묵으로 근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이미 끔찍한 실수를 범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해 달리지 않을 수 없다. 기요메 역시 안데스에서 돌아와 난파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내게 털어놓지 않았던가! 보편적인 진실은 이런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혼자라면 나는 드러눕겠어." 프레보가 내게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북동을 향해 곧장 걸어간다. 만약 나일강을 지나온 상태라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더 깊숙이 빽빽한 아라비아 사막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셈이다.

이 날에 관해서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조급해 하던 것이 기억난다. 무작정 아무것에나 서둘렀으며, 내가 쓰러지는 것을 향해 서둘러 댔다. 내가 땅 밑을 바라보며 걷던 것도 기억난다. 신기루에 진저리치고 있었으니까. 가끔씩 우리는 나침반으로 우리의 진로를 바로잡았다. 우리는 또 숨을 좀 돌리려고 이따금씩 드러눕기도 하였다. 나는 또 밤을 대비하여 간직하고 있던 내 고무 우비를 어디엔가 내던져 버렸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 내 기억의 실마리는 저녁의 신선함으로 다시 살아난다. 나 역시 모래와 같은지라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워져 버렸다.

해가 지자 우리는 야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물이 없는 이 밤 우리는 절명하고 말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하산 천 조각들을 가지고 왔다. 만약에 그 독이 도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내일 아침 물을 좀 마실 수도 있으리라. 별 아래 우리의 이슬 함정들을 한 번 더 펼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저녁 북쪽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바람의 맛이 변하였다. 방향도 바뀌었다. 벌써 사막의 뜨거운 입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맹수 한 마리가 깨어난다! 그놈이 내 손과 얼굴을 핥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더 걸어 보았자 10킬로미터도 못 갈 것이다. 나는 사흘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18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왔으니…

그러나 걸음을 멈춘 순간, 프레보가 내게 말한다.

"맹세코 저건 호수인걸."

"돌았군!"

"황혼이 다 된 지금 이 시간에 신기루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내 눈을 믿는 것을 단념한 지 오래이다. 어쩌면 신기루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광기가 만들어 낸 발명품이다. 어떻게 프레보는 계속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프레보가 우긴다.

"여기서 20분 거리네요. 내 가 보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울화가 치민다.

"가 보게. 가서 바람 좀 쐬고… 건강에는 그만이지. 하지만 자네의 호수가 정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소금물이라는 걸 알아야지. 소금이건 아니건 그건 정말 멀리 있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호수는 없다니까."

프레보는 시선을 고정시킨 채 벌써 멀어져 간다. 나는 그 뿌리칠 수없는 유혹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 "기관차를 향해 곧장 투신하는 몽유병자들도 있는 법이야." 나는 프레보가 돌아오지 못하리란 것을 안다. 그는 그 텅 빈 공간이 야기하는 현기증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리하여 더 이상 발걸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좀더 멀리 가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가 죽고, 또 나는 나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나를 엄습한 이 냉담함을 길조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반쯤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이 같은 평화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기회 삼아 돌멩이에 배를 대고 엎드려 유서를 한 장 쓰려고 한다. 내 편지는 매우 훌륭하다. 매우 위엄을 지니고 있다. 나는 편지에 아낌없이 현명한 충고를 담겠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막연하나마 허영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 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겠지. "이거 참 대단한 유서로군! 그가 죽다니 참 안됐구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나는 침을 만들려 애쓴다. 침을 뱉어 본 지 벌써 몇 시간이 되었나? 이제는 침도 말라 버렸다. 만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끈끈이 같은 것이 입술을 봉해 버린다. 그것이 말라붙어 입술 겉에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침을 삼키려 노력해서 성공한다. 그리고 내 눈은 아직 환해지지 않았다. 그 환한 광경이 눈에 보이면 내 생명은 두 시간 남짓한 셈이다.

밤이 된다. 지난 밤 이래 달이 더 커졌다. 프레보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두 다리 뻗고 누워서 이 명백한 사실들에 관해 숙고해 본다. 오래전에 느꼈던 인상을 다시 떠올려 본다. 나는 그 인상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자 애를 써 본다. 그때 나는… 그때 나는… 배에 탔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길이었고, 상갑판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 마스트 끝이 별들 사이를 아주 천천히 이리저리 산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돛대가 없다. 그러나 배를 타기는 탔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의지와는 상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예상인들이 나를 묶은 채로 배에 집어 던졌다.

돌아오지 않는 프레보를 생각해 본다. 나는 단 한 번도 그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징징 짜는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나로서는 참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프레보는 사내다.

아! 500미터 저 멀리에서 그가 램프를 흔들고 있지 않는가! 그는 발자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에게 응답할 램프가 없는지라 일어나서 소리친다. 그러나 그는 듣지 못하고…

그의 램프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램프가 켜진다. 세 번째 램프. 이런, 이건 수색대로군.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어이!"

그러나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세 개의 램프는 잇달아 구명 신호를 계속 보낸다.

오늘 저녁, 나는 미치지 않았다. 기분도 좋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주의 깊게 응시한다. 500미터 거리에 세 개의 램프가 있다.

"어이!"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잠깐 패닉 상태에 빠진다. 내 경험으로서는 유일하게 기억될 패닉 상태 말이다. 아아! 나는 아직

달릴 수 있다. "기다려… 기다리라고…." 저들은 발길을 돌릴 참이다! 저들은 멀리 떠나 다른 곳을 뒤질 것이고, 나는 쓰러질 것이다! 나를 구해 줄 팔들이 저기 있는데, 나는 삶의 문턱에서 스러져 가다니.

"어이! 어이!"

"어이!"

저들이 내 목소리를 들었다.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히지만 그래도 달린다. "어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리다 프레보를 보고 쓰러진다.

"아! 그 램프들이 죄다 보일 땐 말이지!…"

"웬 램프들?"

진짜 이놈 혼자로군.

이번에 아무런 실망도 못 느끼나 은근히 울화가 치민다.

"그런데 당신 호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호수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향해 반 시간 동안 걸었지요. 반 시간이 지나자 너무 멀어지더군요. 그래서 돌아왔지요. 그렇지만 난 확신해요. 지금 그것이 호수라는 걸…."

"자넨 돌았어. 완전히 돌았다니까. 그래 그런 짓거리를 왜 해?… 왜 하느냐고?"

그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왜 그 짓을 하였는가? 나는 분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분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프레보는 목멘 소리로 내게 설명한다.

"마실 물을 찾아내길 간절히 바랐죠… 당신 입술이 하도 희기에!"

아아! 내 분노는 누그러든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듯 손을 이마로 가져간다.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지금 자넬 보고 있듯, 착오가 있을 수 없이, 틀림없이 불빛 세 개를 봤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세 개의 불빛을 봤대도, 프레보 이 사람아!"

프레보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그가 시인하고 만다. "네 그렇고말고요, 뭐가 제대로 안 되네요."

수증기가 없는 이런 대기에서는 흙의 방사가 빨리 진행된다. 벌써 몹시 춥다. 일어나 걸어 본다. 하지만 이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위에 몸을 떨고 있다. 수분이 빠져나간 내 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얼음 같은 추위가 파고든다. 이 추위는 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금니들이 덜덜거리고 몸은 경련으로 떨고 있다. 나는 이제 전등도 사용할 수 없다. 손에 쥔 전등이 몹시 흔들리기 때문이다. 추위 한 번 탄 적 없는 나인데. 그런데도 곧 동사하기 직전이다. 갈증의 증상이 이렇게 희한하다니!

열기 속에 품고 다니기 귀찮아진 고무 우의를 어딘가에 내던져 버렸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사막에는 대피소가 없음을 깨닫는다. 사막은 대리석마냥 반들반들 거린다. 사막은 낮 동안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고, 밤엔 사람을 발가벗겨 바람받이로 내세운다. 나를 감싸 줄 나무 한 그루, 울타리 하나, 돌 한 조각 없다. 바람은 광활한 벌판의 기병대처럼 나를 엄습한다. 바람을 피해 보려 자리를 맴돌아 본다. 누웠다 일어났다 해 본다. 누웠거나 섰거나 이 얼음 채찍질에 노출되어 있다. 나는 달릴 수가 없다. 이제는

기운도 떨어졌다. 살인자들을 피할 수도 없다. 그래서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얼굴을 모래에 묻고 털썩 꿇어앉는다!

조금 후에야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곧장 걸어 나간다. 여전히 덜덜 떨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란 말인가? 아, 막 출발한 참이었는데! 프레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목소리 덕에 나는 의식을 되찾는다…

나는 여전히 덜덜 떨면서, 온몸으로 딸꾹거리며 프레보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이건 추위가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이게 종말이로군." 내 탈수 상태는 도를 넘었다. 나는 그제 이어서 어제 혼자 이동하면서 그토록 멀리 걸어갔던 것이다.

임종을 추위로 맞이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내면의 신기루들이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십자가, 그 아랍인들, 그 램프들 말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나의 흥미를 끌기 시작한다. 나는 노예처럼 채찍질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나는 여기서 또 무릎을 꿇고 만다.

우리는 약을 조금 챙겨 왔다. 순수 에테르 100그램, 90도 알코올 100그램,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 분량의 요오드. 애를 써서 순수 에테르 두세 모금을 마신다. 마치 칼을 삼키는 것 같다. 그 다음은 90도 알코올을 약간 마셔 본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구멍이 콱 막혀 버린다.

모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 드러누워 모래로 몸을 덮는다. 얼굴만 쏙 내밀고 있다. 프레보는 잔가지들을 찾아내 불을 지피는데, 그 불은 사위어 갈 것이다. 프레보는 모래 속에 묻히길 거부한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에 견디는 쪽을 택한다. 어림없는 짓이다.

목멤은 여전하다. 불길한 징조다. 그래도 기분은 좀 나아졌다. 희망이란 희망을 초월하여 안정감을 느낀다. 별들 아래에 노예상인의 선박 갑판에 묶인 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행을 떠나 본다. 어쩌면 나는 그토록 불행한 편은 아닐지도 모른다…

근육을 쓰지만 않으면 추위는 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 되니 모래 속에 잠든 내 육신을 잊고 만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 더 이상 고통도 없으리라. 하기야 실제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고통의 이면에서는 피로와 정신착란이 조화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림책으로, 약간은 잔혹한 동화로 변한다… 조금 전에는 바람이 나를 채찍질하듯 몰아붙였고, 나는 그것을 피하고자 겁먹은 짐승처럼 맴돌곤 하였다. 그랬더니 호흡이 힘들어졌다. 무릎 하나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어느 무릎인가가. 그리하여 나는 이 천사의 무게에 대항해 몸부림쳤다. 이제껏 사막에서 고독을 느낀 적은 없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지 않게 된 지금 나는 내 안에 틀어박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젠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폭포처럼 쏟아 내리는 이 이미지들이 나를 조용한 꿈속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느낀다. 바다 깊은 곳에 이른 강물은 평온해지는 법이다.

사랑하던 그대들이여, 작별을 고하노라. 사람의 육신이 물을 마시지 못해 사흘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어찌 내 탓이랴.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을 샘들의 포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자율성이 이렇게까지 제한적인 줄은 미처 몰랐다.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 앞길을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롭다고 여긴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우물에 매어 놓는 끈, 탯줄처럼 자신을 대지의 배에 매어 놓는 끈이

보이지 않는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곧 죽음이다.

그대의 고통을 제외하면 아무 미련도 없다. 결국 나는 최상의 몫을 누렸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리라. 나는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 도시에서 인간적 삶을 찾을 수는 없다.

비행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사람이 비행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니다. 또 농부가 쟁기를 위해 밭을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행기 덕분에 도시와 그 회계 장부를 떠날 수 있다. 그리하여 농부의 진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비행은 인간의 일인지라 비행사는 인간의 근심을 알고 있다. 비행사는 바람과 별들과 밤과 모래와 바다를 상대한다. 그는 자연의 힘에 맞서 계략을 짠다. 정원사가 봄을 고대하듯 비행사는 새벽을 고대한다. 그는 '약속의 땅'을 고대하듯 착륙장을 고대한다. 그리고 그가 찾는 진실이란 별들 속에 있는 것이다.

나로서는 불평거리도 없다. 사흘 전부터 걸었고, 갈증을 겪었고, 모래 위 발자국을 더듬었고, 이슬에 희망을 걸었다. 땅 위 어딘가에 사는지도 잊어버린 내 부류의 인간을 만나려고 애를 쓰며 찾아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산 자들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나로서는 저녁 약속을 위해 어떤 뮤직홀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근심거리들이 더욱 중대한 일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교외선 열차에 오른 주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러면서도 개미들처럼 자신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억압에 눌려, 주어진 용도에 따라 변형된 이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리한 하찮은 일요일들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 것인가?

한 번은 러시아 어느 공장의 모차르트 연주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것에 관한 글을 썼다. 욕설로 범벅이 된 편지가 200통이나 날아들었다. 나는 싸구려 카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들은 다른 노래를 전혀 모른다. 나는 싸구려 까페 지배인을 탓하는 바이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나는 내 직업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스스로를 착륙장 농군으로 느낀다. 나는 여기 사막과는 매우 다르게 교외 열차 안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겪는다! 결국 이곳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도박을 벌였고, 도박에 진 것이다. 내 직업의 질서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양분을 잊을 수 없다. 그렇잖은가, 동료들이여? 그리고 위험하게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투이다. 투우사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삶이다.

내 느낌에 하늘이 환해지는 듯하다. 팔 하나를 모래에서 빼 본다. 손을 뻗으니 헝겊 쪼가리가 잡힌다. 그것을 만지작거려 본다. 하지만 여전히 건조하다. 기다려 보자. 이슬은 새벽에 맺힌다. 그러나 새벽은 우리 헝겊들을 적시지 않은 채 밝아 오고 있다. 그러자 내 생각은 약간 뒤엉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는 건 메마른 심장 하나… 메마른 심장… 도무지 눈물 지을 줄 모르는 메마른 심장이…."

"프레보! 떠나자. 우리 목구멍이 아직 막히지 않았으니 걸어야 해."

VII

열아홉 시간이면 사람을 말려 버릴 서풍이 불어온다. 식도는 아직 막히지 않았으나 굳어 있기에 고통스럽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갈그렁거리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내게 말해 준 대로,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기침이 시작될 것이다. 혀가 거추장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벌써 반짝이는 점들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것들이 불꽃으로 변할 때 나는 쓰러지겠지 !

우리는 급히 걷는다. 우리는 새벽의 서늘함을 이용한다. 사람들이 말하듯, 한낮에는 더 걷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낮이 되면…

우리에게는 땀을 흘릴 권리가 없다. 기대할 권리조차 없다. 이 서늘함은 습도 18퍼센트의 서늘함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부는 이 바람은 사막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뢰할 수 없는 정다운 애무에 우리의 피는 말라 버릴 것이다.

우리는 첫날 약간의 포도를 먹었었다. 사흘 동안 우리가 먹은 것은 오렌지 반쪽과 마들렌 반쪽뿐이다. 우리의 양식을 씹을 침이나 있을까? 그러나 허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갈증만 겪을 뿐이다. 이제는 갈증보다도 갈증의 후유증을 겪는 듯하다. 이 굳어 버린 목구멍. 이 석고 같은 혀. 이 칼칼함과 입 안의 이 소름끼치는 맛. 이 감각들이 내게는 새롭다. 물론 이것들은 물로 치유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들을 물과 결부시킨 기억이 전혀 없다. 갈증이 점점 더 그 병색을 강화하면서, 열망으로서의 본색은 점점 더 그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이제는 샘물과 과일들에 관한 이미지도 예전보다 덜 고통스럽게 여겨진다. 내가 정감을 잊어버렸다고 여기고 있듯이, 오렌지의 광채도 잊고 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우리는 주저앉았다. 그러나 다시 출발해야 한다. 긴 여정들은 포기하고 만다. 500미터를 걷고 나서는 피로로 쓰러진다. 그리고 팔다리를 주욱 펴니 그렇게 기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출발해야 한다.

풍경이 변한다. 드문드문 돌들도 보인다. 우리는 지금 모래 위를 걷고 있다. 전방 2킬로미터 지점에 사구들이 늘어서 있다. 그 언덕들 위로 나지막한 식물들이 점점이 솟아나 있다. 우리가 걸어온 강철 표면보다는 모래가 더 마음에 든다. 이곳은 황금빛 사막이다. 이곳은 사하라다. 사하라만큼은 알아볼 것 같다…

이제는 200미터만 걸어도 탈진해 버린다.

"그래도 저 나무들까지라도 걸어 보자."

이것이 마지막 한계다. 일주일 지나서 '시문'을 찾으러 이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자동차로 거슬러 올라갈 때면, 이 마지막 장정의 거리가 80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벌써 거의 200킬로미터나 답파한 셈이다. 어떻게 내가 계속 걸을 수 있었을까?

어제 나는 아무 기대도 없이 걸었다. 오늘 이 희망이란 말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걷기 때문에 걷는다. 황소들이 밭을 가는 이유도 틀림없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어제 오렌지 숲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낙원은 더 이상 없다. 나는 이제 오렌지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심한 갈증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쓰러져 가겠지만 절망이란 것은 절대 모른다.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하기야 바로 그점이 유감스럽다. 비애를 물처럼 부드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내 자신이 안쓰러웠다. 그리고 친구처럼 내 자신을 동정하였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는 친구도 없다.

나를 발견하고 그을린 두 눈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저들을 그토록 불러 대면서 고통스러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열정적 도약, 미련, 온화한 고통 이런 것들이 재산인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제 이런 재산이 없다. 숫처녀들은 첫사랑을 나누는 밤 비애를 느끼고 눈물 흘린다. 비애는 생명의 떨림과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비애도 느끼지 못한다.

사막이 바로 나다. 이제는 침이 고이지도 않지만, 내가 보면 몹시도 애처로워했을 달콤한 이미지들도 더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태양은 내 안의 눈물샘을 바닥나게 하였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무엇이던가? 바다 위로 돌풍이 스치고 지나가듯 희망의 숨결 하나가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방금 내 본능을 일깨운 그 신호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이 변해 버렸다. 이 모래 시트, 이 낮은 둔덕과 이 신록의 풀밭은 이제 풍경이 아니라, 무대를 이루고 있다. 아직은 비었으나 준비가 완료된 무대이다. 프레보를 바라본다. 그도 나만큼 놀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나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장담컨대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이다…

장담컨대 이 사막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 그 침묵이 돌연 광장의 아우성보다도 더 큰 감동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모래 위에 찍혀 있는 저 발자국들!…

아아! 인류의 잃어버린 발자취를 찾아 헤맸었고, 종족과 격리되어 있었으니, 우리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래에 찍힌 인간의 기적적인 발을 발견한 것이다.

"프레보,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 헤어진 거야…."

"여기서는 낙타가 무릎을 꿇었고…."

"여기서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몇 시간 지나면 구조는 물 건너 간다.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갈증은 대책이 서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급속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목구멍도…

그러나 나는 몸을 기우뚱거리며 사막을 횡단하고 있을 그 대상을 믿어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걸었다. 그러다 별안간 닭소리가 들려왔다. 기요메는 내게 이런 말을 하였었다. "결국에는 안데스 산맥에서 닭소리가 들리더군. 기차 소리도 들리고…."

닭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그래서 생각한다. "처음에는 내 눈에 속았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갈증의 후유증이다. 내 귀는 더 잘 견뎌냈구나…." 그런데 프레보가 내 팔을 잡았다.

"들었어요?"

"뭘?"

"닭소리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물론, 이 바보야, 생명을 구한 것이다…

나는 마지막 환각에 빠져 버렸다. 서로 쫓고 쫓기는 개 세 마리를 보았다. 프레보도 바라보곤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래도 우리 둘은 저 베두인족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본다. 우리 둘은 우리 마음의 가득한 숨결을 몽땅 그에게 날려 본다. 우리 둘은 행복에 겨워 웃어 댄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30미터도 채 못 가고 멈춘다. 우리 성대는 이미 말라붙었다. 우리끼리는 들릴 듯 말 듯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둔덕 뒤로부터 정체를 드러낸 그 베두인족과 낙타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사막의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 잔혹한 마귀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보이고는 도로 데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는 달려갈 수도 없다!

또 다른 아랍인의 옆모습이 둔덕 위로 출현한다. 고함을 질러 보나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흔들어 댄다. 거대한 신호로 하늘이 가득 차 버린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이 베두인족은 여전히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가 천천히 90도가량 몸을 돌린다. 그가 정면으로 우리와 마주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그가 우리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그로 인해 우리의 갈증과 죽음과 신기루는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그가 90도 몸을 돌린 것으로 그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단지 그의 상체 움직임만으로, 다만 단 한 번의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 그는 생명을 창조해 낸다. 내게는 그가 신처럼 보이는 것이다…

기적이다… 바다 위를 걷는 신처럼 그는 우리를 향하여 모래 위를 걸어 오고 있다.

아랍인은 단지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두 손으로 우리 어깨를 어루만지는 그에게 우리는 순순히 몸을 맡겼다. 우리는 드러누웠다. 여기에는 더 이상 종족도, 언어도, 분파도 없다… 대천사의 손을 우리 어깨에 얹은 이 가난한 유목민이 있을 뿐…

얼굴을 모래에 대고 기다렸다. 그러다 이제는 배를 깔고 누워 머리를 대야 속에 처박고 송아지처럼 물을 퍼마신다. 베두인족이 보고 놀라 그때마다 우리를 저지하려 든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놓기가 무섭게 우리는 다시 얼굴을 몽땅 물속에 틀어박는다.

물이라!

물, 맛도 없고, 빛깔도 없고, 향도 없는 물, 정의할 수도 없는 물이라. 그대를 음미하면서도 그대를 알 수 없다니. 그대는 생명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그대는 의미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쾌락으로 우리를 파고든다. 그대와 더불어 우리가 단념해 버린 모든 권능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대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 안에는 고갈되었던 마음의 샘들 모두가 다시 솟아나고 있다.

세상 모든 재화 가운데 그대야말로 가장 위대한 재화이다, 그대는 가장 미묘한 존재이기도 하다.

땅속에서도 그토록 순수한 그대여. 사람은 마그네슘 샘을 옆에 두고 죽을 수도 있다. 해수호를 지척에 두고도 죽을 수 있다. 약간의 염분이 포함된 2리터 분량의 이슬을 마셔도 죽을 수 있다. 그대는 절대 순수만을 고집하며 어떠한 변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대는 만만히 볼 수만은 없는 신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소박한 행복을 베푸는 그대.

우리의 생명을 구해 준 그대, 리비아 베두인족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리라. 그대의 얼굴을 결코 기억하지 못하리라. 그대는 '인간 Homme'이로다. 그리고 그대는 동시에 만인의 얼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대는 결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았던가. 그대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이다. 그리고 나로서는 만인들 속에서 그대를 알아볼 것이다.

그대는 나에게 고귀함과 친절함이 몸에 밴, 물 마실 권리를 지닌 위대한 영주처럼 보였다. 내 모든 친구들, 내 모든 원수들이 그대 속에서 내게로 걸어온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 원수는 아무도 없다.